

---

2026 vol.108 상반기

---

# 영중소식

Yeongdeungpo JoongAng Magazine



[ycmc.church](http://ycmc.church)

# 2026 상반기 CONTENTS



## 은혜의 강단

04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최태수 목사**

## 비전 선포식

07 "기억하라, 그리고 나아가라"

## 은퇴 및 신천장로의 글

- 10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조영재 원로장로**
- 11 감사, 감사... **박영자 원로장로**
- 12 부족한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창우 원로장로**
- 13 교회를 위한 헌신은 멈추지 않을 것 **우종화 원로장로**
- 14 함께 걸어가는 길 **정창영 신천장로**
- 15 장로라는 이름 **조은정 신천장로**
- 16 순증에서 오는 자유 **김세웅 신천장로**

## 평신도 칼럼

17 시가 비추는 인간의 자리 **조윤상 청년**

## 섬김의 현장

20 교회소식 아나운서팀

발행처 영등포중앙교회  
072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63  
TEL. 02)2631-5721~2 FAX. 02)2631-5725

발행인 최태수  
편집인 조영주 신승민  
편집위원 김성일 김선정 김성희b 권지선 박은정 오세빛  
발행일 2026. 5. 17



# The first half of 2026



## 자녀에게 주는 글

- 22 새로 태어난 아가 도현이에게 **김솔립 최승아 성도**
- 23 윤슬, 다원아 안녕? **김기근 최은정 성도**
- 24 사랑하는 내 딸 서영이에게 **이현진 집사**
- 25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에게 **안미경 사모**

## 토닥토닥 문화센터

- 26 토닥토닥 문화센터를 시작합니다!

## 담임목사님께 물어보세요

- 28 "요즘 운세, 무속...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목회자 칼럼

- 30 멈춤,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김난경 목사**

## 성화 이야기

- 32 베데스다 못의 예수님 **홍천수 원로장로**
- 36 색으로 읽는 성경과 성화 **이현민 청년**

## 교회학교 소식

- 40 영아부
- 41 유치부
- 44 유년부
- 47 초등부
- 50 청소년부
- 53 젊은이교회
- 57 목회자·장로·청년 간담회

## 영증게시판

## 교우소식

#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21

## 담임목사 최 태 수

- 감리교신학대학교 졸업
- South East Graduate Association for Theology 선교학석사
- 미국 United Theological Seminary 선교학박사
- 필리핀 선교사
- 남서울대학교 교수, 교목
- 해성교회 담임목사
- 강남지방 감리사
- 현/영등포중앙교회 담임목사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는 요즘 가끔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성공을 위해 달려왔는데, 막상 성공하고 보니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내가 옳은 길로 잘 갔는지 잘 모르겠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문득 존재의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왜 사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

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거나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가치는 다름 아닌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죄인이고 연약한 자라고 칭하는데,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교회

“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

를 오래 다닌 분 중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신앙의 연륜이 짧을지라도 진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봄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 이사야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되었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와 성전을 잃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나라가 없어도, 성전이 없어도, 환경이 무너져도 너희는 여전히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단순한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예배하는 백성이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예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 개의 주제는 계속하여 반복됩니다. 그중에서도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건강함을 측정하는 기준은 건물의 크기나 교인 숫자가 아니라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 있는 교회이고, 예배가 형식이 된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조금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레위기를 보며 어렵고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물을 죽이고 피를 뿌리는 옛날 제사 이야기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에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예배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레위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히브리 세계관은 세상을 ‘거룩한 것, 일반적인 것, 부정확한 것’ 3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장소, 시간 등 모든 것을 이 기준에 따라 나눕니다. 반면에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헬라적 이분법(선-악,

교회-세상 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거룩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예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를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말씀도 잘 알면 좋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문장 맨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로 레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레위기의 시작은 출애굽기 끝에서부터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는 무엇을 증언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결혼’과 같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하면 권리와 의무가 생기듯이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나만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인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즉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합니다. 시내산 언약 후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결혼했으니 함께 살 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성막을 열심히 만든 모

세조차 그 영광이 너무나 두려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멈춰 섭니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모세가 성막 밖에서 있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바로 그다음에 이어지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And),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성막 안으로 들어오너라.”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와라”라고 초청하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요한복음 4: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신앙의 경력이나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습관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 임재 안으로, 내 사랑 안으로, 내 영광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시는 부름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잘 짜인 프로그램이나 멋진 지어 올린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다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억하라, 그리고 나아가라”

- 9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 -

**부활**의 아침, 우리 영등포중앙교회는 단순한 절기를 넘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2026년 부활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드러진 비전 선포식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난 90년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방향 전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번 비전 선포식은 ‘기억’과 ‘과송’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과거를 기념하고, 그 기억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를 향한 결단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선포된 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1936년 10월 25일, 한강 이남 최초의 감리교회로 세워진 영등포중앙교회는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심어진 자리였습니다. 그 작은 씨앗은 세월 속에서 자라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가정을 세우며 오늘의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본당 입구에 동판을 세웠습니다. 이 동판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증언하는 ‘신앙의 표지석’이며, 동시에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번 비전 선포식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준 장면은 세대별 대표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청소년, 청년, 청장년 대표들이 차례로 일어나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세 고백이 하나로 모여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대는 달랐지만,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후 교회는 앞으로의 10년을 향한 선교적 결단을 선포하였습니다. ‘100주년 글로벌 선교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한 교회씩 선교지에 교회를 세운다는 비전이었습니다. 9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심겨졌고, 우리를 통해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열방으로 보내는 교회가 되자는 선포였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로 소개된 곳은 필리핀 Nueva Ecija 주 Barangay Macatbong 지역에 위치한 마캇봉 감리교회(Macatbong U.M.C)입니다.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질 때,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선교적 거점 교회로 쓰임 받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90년의 은혜 위에 100년의 사명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청소년부 대표 | 양윤서 학생

100주년 비전을 선포하며,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10년 후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이곳에 계신 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종교회가 청소년들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신앙의 아지트'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 지식만을 배우는 곳을 넘어, 치열한 입시와 경쟁에 지친 우리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숨 쉬고 소통할 수 있는 편안한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로 고민부터 마음의 아픔까지 함께 고민해 주고, 믿음으로 동행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명문 교회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와 성경공부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경험들과 멘토링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등포중앙교회 청소년부의 이름은 '영중등대'입니다. 90년 동안 이어진 값진 신앙을 이어받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겠습니다.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영종교회의 청소년들이 세상의 시험, 풍파 속에서 지지치 않고, 믿음의 길로 잘 항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과 기도로 무장한 든든한 등대지기가 되어주시기를 영중등대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부탁드립니다.

젊은이교회 대표 | 이현민 청년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며, 지난 90년의 발자취를 기념하는 동시에 100주년을 향해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는데, 청년들을 대표하여 10년 후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바람과 이를 위해 청년 세대들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이 소중한 유산을 발판 삼아,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의 영광을 현재의 간증으로 이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영등포중앙교회의 90년은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로 교회를 지켰고, 누군가는 눈물로 그 자리를 버텼으며, 누군가는 묵묵히 믿음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쌓여 영중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고, 그 믿음 위에 지금의 우리가 서 있음을 믿습니다. 10년 후,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믿음의 전통을 더욱 잘 이어받아 살아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이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교회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영등포중앙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되길 원하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히 무장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이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부터, 지역과 열방을 향해 비춰나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 이러한 우리들의 비전을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 ‘값진 유산’에 안주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선배님들이 물려주신 신앙의 터전은 참으로 견고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물려받은 지도를 들고 직접 광야로 나가,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만의 신앙 고백을 치열하게 기록해 하겠습니다. 유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그 유산을 풍성하게 꽃피우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후배들이 되겠습니다.

둘! ‘말하는 신앙’을 넘어 ‘삶으로 증명하는 선교적 존재’가 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세상 속으로 기꺼이 파송되겠습니다. 10년 뒤 우리가 더 이상 청년이 아닌 교회의 주축이 되었을 때, “그때 받은 유산 덕분에 오늘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고백하며,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배로 돌려주는 책임 있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90년의 기도를 먹고 자란 청년들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동력 삼아 100주년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걷겠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으나 멈추지 않는 영중의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청장년 대표 | 김인규 집사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권면의 말씀을 듣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살피며, 서로가 서로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머물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고 영혼을 나누는 깊은 속회로 교회가 하나되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조 영 재 원로장로  
(제3남선, 기드온속)

**교회**에서 장로란 무엇일까?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장로의 직분을 받으라고 하면 과연 어땠을까? 당시에는 신앙생활 과정 중에 하나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간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쉽지는 않은 길이었습니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절대자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기에 장로 직분 받기를 잘했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가보면 교회학교 청년들과 몽골 선교 목적지인 아르바이헤르(Arveyheer)로 가는 중 교통사고를 당해 황량한 광야로부터 탈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인도하고 계심을 목격하게 되었고, 케냐 엠부(EMBU) 노방전도 과정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힘을 주심을 발견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며, 어둠 속에 처해 있을 때 아무 공로 없는 사람에게 빛으로 오셔서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막으시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던 손길로 영원히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허락하신 이 삶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어 주께서 약속하신 길을 따라 날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하시고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배제된 협력은 그 어느 선도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지금까지 나 중심의 판단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협력이 우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해외 생활을 하다 2000년 초 교회 주변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곧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2006년 김진두 목사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영중교회 출석 6년 만에 장로로 취임하였으나 당시 저는 장로의 길이 이렇게 수많은 역경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수락하였습니다.

50이란 이른 나이에 장로가 되어, 아직 세상으로 눈이 많이 가고 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방향과 비전을 보여주며 훈련시키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간섭하고 인도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며, 외롭고 지친 상황에 처할 때에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셨으며, 필요할 경우 목사님의 중보기도와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 끝까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럿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힘들고 앞이 캄캄해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서로 협력하며 인내하며 걸어가니 모든 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잘 해결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은퇴하면서 그간 풍우동주(風雨同舟) 마음으로 동역을 하고, 아름답게 은퇴하시는 세 분의 장로님께 깊은 우정과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동안 저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다면, 혜량(惠諒)의 마음으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오랫동안 간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할 때까지 같이 하여 준 김백화 권사와 조한목 집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값진 교회 리모델링이라는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퇴장로의 글

감사, 감사...



박영자 원로장로  
(제7여선, 강마을1속)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5년 동안 장로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고 허물이 많은 제가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기쁘고 즐거울 때나, 슬프고 힘들 때나 늘 함께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은퇴하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최고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교만하고 거칠 것 없이 당당했던 제가, 앞길이 막히고 눈이 어두워졌던 시간을 만나며 힘든 고난 속에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십자가를 붙들고 회복을 위해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던 순간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강화도 웨슬리수도원 위원장을 맡아서는 평소에는 만져보지도 않았던 호미와 삽을 들고 땅을 파서 꽃모종을 심고 장미를 심었습니다. 예쁘게 피어나는 튜립을 바라보며 기뻐서 뛰어다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로 수도원이 예쁘게 꾸며지며 단장되었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영적 쉼터로 자리 잡은 것이 참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로 4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수상과 영광을 누리기도 했으며, 아직도 현직에 있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해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26.4.5.(부활주일) 오후 2시, 장로 은퇴찬하 및 취임식

## 부족한 저를 통해

## 일하시는 하나님



이창우 원로장로  
(제6여선, 영동속)

**저**는 충남 아산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 둘째 언니의 인도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새벽예배와 수요예배, 금요 철야예배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기도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강요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학생복을 입고 영등포중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원, 청년부 전도대원으로 섬기며 시골교회를 다니며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섬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돌아해보면 젊은 시절 교회와 회사, 가정만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이 없던 김영결 권사를 중매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1남 1녀를 두었으며, 지금은 든든하고 멋진 사위와 사랑스러운 손녀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제 아픔을 통해 신앙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많은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볼 때마다 제 아픔처럼 여기며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회개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떠나는 모습을 볼 때 큰 감격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잊히지 않는 한 분은 말기암으로 고통받으셨던 (故)이유순 권사님입니다.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 임종 예배를 드린 후 임종 이별식으로 자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축복기도를 하셨습니다. 자녀들 또한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감사로 축복기도를 드렸습니다. 약 세 시간 동안 이어진 그 마지막 이별의 시간은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잠시 소용 왔다가 돌아갑니다. 아버지 부르실 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영등포중앙교회에서 사랑이 많으신 신앙의 아버지 되신 (故)황을성 목사님과 여러 선배 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장로가 되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것과 타협하지 말며,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살아오며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돌아보면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퇴를 맞아 직분의 짐은 내려놓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제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자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퇴장로의 글

## 교회를 위한 헌신은 멈추지 않을 것



우 중 화 원로장로  
(제3남선, 기드온속)

**제 신앙**의 여정은 긴 산을 오르는 일과 같았습니다. 저희 세대가 대부분 그렇듯이 굴곡진 세월을 살아온 탓입니다. 제 신앙생활은 1.4후퇴 때 피난 나온 아버지께서 전라도 시골 마을에 세운 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황해도에서 감리교 집사였던 아버지는 전남 동부지역 최초로 감리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감리교 전도사님을 청빙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감리교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가까운 장로교회에 나갈 수도 있었을텐데, 그러면 그 많은 짐을 지지 않아도 되셨을텐데, 자신이 자라온 감리교 신앙과 크게 다름을 느끼고 스스로 감리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감리교 자부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감리교 계몽운동의 혜택을 받으신 터라 감리교회는 이웃을 섬겨야 한다며 야학을 여시고 선생님들을 모집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신도이면서도 남다른 헌신을 실천하셨습니다.

한국전쟁이 막 끝난 어려웠던 시절, 아버지의 헌신은 사실 가족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헌신이었습니다. 야트막한 야산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처지라 궁핍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작부터 가파른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던 학창 시절, 사업을 하며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 IMF로 무너질뻔한 부도 위기, 공장을 운영하며 겪었던 여러 사고들... 올라도 올라도 끝이 없는 오르막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어느 한순간도 혼자 견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르막길은 지나고 보면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주저할 때 용기를 주시며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힘이 되어 준 아내 오혜숙 권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낼 이유가 되어 준 사랑하는 자녀 인혁과 혜인. 살아온 모든 순간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즈음 믿음의 방향이 찾아왔고 제가 안식을 찾은 곳이 영등포 중앙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한 피항지와도 같았습니다. 피난지를 제2의 고향으로 삼으셨던 아버지 처럼, 영중교회는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랑과 믿음의 훈련을 통해 장로의 직분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그 덕에 대를 이어 교회를 섬기는 영광스런 십자가를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받아 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김진두 목사님, 최태수 담임목사님과 선후배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책임있는 자리라는게 상처나 누를 끼치기도 쉬운 자리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이해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장로의 직분은 내려놓지만 교회를 위한 헌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가사처럼, 주님은 아끼지 않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욱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천장로의 글

## 함께 걸어가는 길



정 창 영 신천장로  
(제6남선, 다윗속)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족한 제가 신천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또한 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온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은혜이기에 감사와 함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글을 나눕니다.

돌이켜보면 제 신앙의 걸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제 삶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자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신앙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늘 제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예배의 자리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교회를 향한 사랑을 심어 준 가장 큰 모습은 부모님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시며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고,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조용히 봉사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젊은 시절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다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아버지의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 언젠가 나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신앙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약 4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수많은 예배의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힘을 얻곤 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깊은 감동을 여러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제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준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신천장로로 피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한 마음과 함께 마음 한편에 큰 책임감이 자리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결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사람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면 또한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아버지이신 정진수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모습처럼,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마음처럼 변함없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 싶습니다.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작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기도도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충성되게 섬기는 장로가 되도록 기도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 장로라는 이름



조은정 신천장로  
(제13여선, 유치원속)

**귀한** 섬김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과정을 기도로 함께해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장로님을 보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열심을 내시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존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천장로로 피택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눈물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왜 눈물이 먼저 나왔을까 생각해 보나... 도저히 제가 보였던 존경하는 장로님들을 따를 자신이 없어서, 제 믿음의 부족함을 저 스스로 너무나 잘 알아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보다는 제 개인의 삶이 소중한 나약한 저라서, 무엇보다 삶의 실체가 없이 말만 하는 성도가 아닌 속 모습까지도 늘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장로가 될 수 없을 듯한 두려움 때문에 장로의 직분을 받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당회를 지나고, 지방회를 지나고, 사랑하는 영등포중앙교회에서 취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많은 생각과 목상을 했습니다.

가장 처음은 제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였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 세우셨기에 겸손히 나아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또 미약하기 그지없는 저의 힘으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을 하다 보니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영등포중앙교회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여러 모습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함께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공동체를 주셨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영등포중앙교회 신앙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아주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아직은 장로라고 불러주실 때마다 몸 둘 바를 몰라 숨고 싶지만, 장로라 불러주시는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십사 구하며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순종에서 오는 자유



김 세 응 신천장로  
(제7남선, 아브라함속)

**부족**한 저를 장로로 피택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평안함보다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너무 부족한데...”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은 내 뜻을 포기해야 하는 것 같고,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앞날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일들로 15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이 주관이 되어 앞날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서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때 명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책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선택해 사는 삶에 익숙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 그것이 더 주도적이고 더 자유로운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삶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되면 무너지는 마음,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스러운 상황이 하루하루 더 가중되어 갈수록 쌓이는 압도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클리닉도 다니고 약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순종은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그로 인해 진정한 나 자신의 자유가 시작된다.”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근심이 평안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깊은 평안이 제 마음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내의 법적 송사조차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마음이 들자 결과와 상관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의 채무도 이익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저를 진정으로 자유케 했습니다. 이번 신천장로에 피택되면서 “왜 나입니까?” “저보다 더 신앙이 깊으시고, 더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저는 지금은 너무 바빠요.”라는 생각들로 저는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장로라는 직분의 이름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로 인해 믿음의 평안이란 더 큰 축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자유로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제 삶을 맡기려 합니다. 장로의 직분이 섬김의 자리임을 잊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목사님을, 교우님들을 섬기는 자로 서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얻는 자유를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 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가 비추는 인간의 자선



조윤상 청년

### AI 일기를 쓰며

2018년 11월, 일본에서 한 결혼식이 화제를 모았다. 신랑 콘도 아키히코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하츠네 미쿠의 형상을 가진 AI와 결혼을 올렸다.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뒤 IT 벤처기업의 챗봇 AI를 구입해 함께 살다가 결혼을 결심했다고 그는 말했다. 결혼식에서 그는 “AI는 인간의 대체품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라며 사랑을 맹세했다. 아내(?)는 아침마다 그를 깨워주고, 퇴근 후엔 반갑게 맞아준다. AI와 주로 대화를 나누며 일상을 함께한다.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영화 <HER>의 설정이 이제 영화적 상상을 넘어 현실이 되었다.

우리의 인정과는 무관하게 AI는 이미 삶의 한 부분으로 함께 하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만 거듭하다, 요즘 시작한 일이 하나 있다. 바로 AI 일기다. “내가 생각하는 AI는 무엇이지?”라는 물음이 시작이었다. 일상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AI에 대한 단상들을 그때그때 적어두는 일이다. 비밀스런 일기장 몇 장을 꺼내 나누려 한다.

#### 일기 1. 오래된 낯선 감각

얼마 전 책장 앞을 오래 서성였다. 오래전 읽은 책이 눈에 띄어 꺼내들고는 찬찬히 살폈다. 10년 전 그었던 밑줄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내가 이런 구절들을 좋아했구나” 낯설고도 흥미로웠다. 책을 미처 덮기 전 여러 생각이 스쳤다. 나는 어떤 생각으로 밑줄을 그었을까. 이 책을 소화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어쩌면 저 밑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그 감각과 AI 사이의 거리가 문득 아득했다. 지금의 내가 이 책이 궁금했다면, AI에게 쉽게 묻고 쉽게 책의 주제를 파악했는지 모르겠다. 책은 밑줄 없이 몇 줄로 요약되었을 거고, 그것으로 심겁게 이해되었을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새삼 되새겼다.

‘딸깍 버튼’은 AI의 별명이다. 무슨 말이든지 써서 ‘딸깍’ 누르기만 하면 그럴듯한 답을 내놓기 때문이다. 이 일은 ‘과정’을 주는 것이 아닌 ‘결과’를 바로 가져다주는 일에 가깝다. 우리는 지난한 과정을 몸으로 통과하며 체화하는 것을 배움이라 여겨왔다. AI 시대에는 ‘과정’이 낯설게 여겨지는 것만 같았다.

칸트는 실천이성비판 등 여러 책을 통해 이성과 감성, 상상력이라는 것이 인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성과 상상력을 AI에게 맡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얻고 잃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볼 새 없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흘러간다. 인간의 삶에서는 여전히 ‘과정’이 중요하지만, AI는 그 자리에 자신을 남겨둔다. 인내와 실패, 깨달음이 껌껌이 쌓이는 ‘과정’이 사라진 자리에,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는 내성마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

## 일기 2. 유한함의 축복

사람은 시간이라는 유한함 안에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이유는 우리네 삶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 수업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인상 깊었다. 학생들이 직접 그린 교수님의 초상화와 AI가 생성한 그것을 나란히 놓고, 자신에게는 학생들이 그려준 그림이 훨씬 소중한다고 했다. 무한히 생성하는 AI와, 유한한 시간을 쏟은 인간의 손길은 그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말마따나 AI는 무한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AI는 오로지 생성하고, 생성한다. 제한도, 죽음도 없다. 반면, 인간은 죽음의 그늘 아래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삶을 가꿔나간다. 한 인간이 빚어낸 것에 감동하는 이유는 삶의 시간이 녹아져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나는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찰나의 인생 속 얼마의 시간 동안 이 글을 쓰고 있다. 잘 쓴 글이든 못 쓴 글이든, AI가 쓴 것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의 삶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가치는 유한함에서 비롯된다.

AI 덕분에(?) 유한함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100세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약 36,525일이다. 영원할 것만 같은 일상이 사실은 매일 하루씩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유한한 날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늘 기로에 선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바장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가는 일이지 않을까.

### 일기 3. 그리스도인의 길

“유려하고 빠른 AI의 조언보다 인간의 투박한 침묵이 위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 MBC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소설가 김애란의 말이 맘돈다. AI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아야 할 감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인의 고통 앞에 어쩔 줄 모르고 머뭇거리는 일, 애통하는 마음에 선뜻 말을 내뱉지 못하는 망설임, 고통 앞에 무력하게 그저 함께 있는 일. 머뭇거리지도, 망설이지도 않는 AI의 유능함과 다르게, 자발적 무능함이 가장 인간적인 길이지 않을까 싶다. 역설적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더욱 인간임을 증명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웅재 목사의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더욱 빛나는 요즘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보다 /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중략) /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인간은 서로를 돌보고 돌봄을 받는 삶의 방식을 벗어날 수 없다. AI 시대,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아야 할 감각일 것이다.

### 일기를 마치며

타자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타자를 통해 자신을 알고, 더 깊게 이해하게 된다. AI를 타자화하는 일도 마찬가지 일이다. AI를 어떤 관점으로 보든, 그것은 결국 인간의 길을 돌아 보게 하는 거울로서 제 역할을 한다. 우리가 평소 익숙하게 여겼던 것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AI 앞에서, 인간의 길을 다시 고민하는 요즘이다.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하는 은혜의 울림

주일 예배 시간, 영상 너머로 들려오는 정겨운 목소리의 주인공들을 만났습니다.

목소리로 교회의 소식을 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신미순 권사, 최영운 집사, 최은정 성도의 섬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 신미순 권사



▲ 최영운 집사



▲ 최은정 성도

## 1. 섬김의 시작: “망설임 끝에 마주한 하나님의 부르심”

신미순  
권사

“처음 목사님의 제안을 받았을 때 여러 번 고사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뭐라고 이 작은 수고를 마다하는가’라는 마음이 들더군요. 작년 초, 단둘이 시작했던 목소리 봉사가 어느덧 세 명의 동역자로 늘어난 것을 보며 하나님이 이 섬김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최영운  
집사

“우리 교회에 등록된 지 3년째가 되던 해, 이전과는 다른 간절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방송 업무의 경험을 어떻게 교회를 위해 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이 귀한 자리를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최은정  
성도

“작년 여름부터 우리 교회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달란트가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하고 즐거울 따름입니다.”

## 2. 섬김의 과정: “성도님들의 귀에 닿는 기분 좋은 울림”

아나운서팀의 거룩한 준비는 원고를 받는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편안한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세 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녹음에 임합니다.

최영운  
집사

“광고는 듣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한 번에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원고를 받으면 여러 번 입에 익혀서 가장 부드러운 톤과 정확한 발음으로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미순  
권사

“스마트폰 마이크를 연결해 여러 차례 예독하며 준비합니다. 한 번에 쪽 읽어 내려가는 방식이라 중간에 발음이 꼬이면 처음부터 다시 녹음하길 대여섯 번 반복하죠. 녹음 전 따뜻한 물로 목을 축이며 정성을 다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최은정  
성도

“원고를 받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녹음하여 전달하려 합니다. 특히 주보를 읽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더 또렷하고 밝게 읽으려 노력합니다. 마무리 멘트를 할 때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활짝 웃으며 녹음합니다.”

### 3. 섬김 중 마주한 은혜와 에피소드

신미순  
권사

“사역을 하며 교회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교회 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커졌습니다. 한 번은 성경 봉독을 하러 강단에 올라갔는데, 성도님들이 ‘아, 광고 목소리가 바로 저 권사님이었구나!’ 하시며 반갑게 인사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최은정  
성도

“7살 딸아이가 제 녹음하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곤 합니다. 그러더니 본인도 엄마처럼 하고 싶다며 흥내를 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최영호  
집사

“집에서 녹음하다 보면 반려묘 ‘아지’가 문밖에서 자꾸 자기 목소리를 보냅니다(웃음). 그럴 때면 아지를 잠시 격리하고 다시 처음부터 녹음하느라 애를 먹기도 하지만, 그 과정조차도 이제는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 4. 나에게 방송부 아나운서 섬김이란?

최은정  
성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자 기분 좋은 달란트입니다.”

신미순  
권사

“저는 교회 소식을 가장 기쁘게 전달하는 전령사입니다.”

최영호  
집사

“때로는 책임감이 따르는 숙제 같지만, 그 끝엔 늘 감사가 남는 기쁜 숙제입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 아나운서팀의 목소리가 성도님들의 마음 밭에 따뜻한 은혜와 소망의 울림으로 전달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 자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미순 권사님의 성인 된 두 자녀가 주님의 품으로 다시 뜨겁게 돌아오도록, 또한 최은정 성도님의 자녀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아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건강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태어난 아가

### 도현이에게



김솔립, 최승아 성도

#### 아빠가 쓰는 편지

사랑하는 우리 도현이에게,  
 네가 우리 곁에 안겼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네. 작은 손과 발로 세상을 느끼며 하루하루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인지 모르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너를 보내주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야.  
 아직은 말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낯설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길 엄마와 아빠가 기도할게. 우리가 너를 사랑으로 돌보고 바르게 인도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한다.  
 사랑하는 우리 도현아, 지금처럼 환하게 웃으며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언제나 너의 곁에서 지켜주고 사랑할게.  
 도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가.

#### 엄마가 쓰는 편지

사랑하는 아들 도현이에게  
 도현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77일이 되었어.  
 엄마, 아빠는 오랜 기다림 끝에 도현이가 우리 가족에게 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기뻐.  
 너의 태명은 joy였단다:)  
 그래서 도현이가 태어나서 열은 우리와 마주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품고 있었어.  
 지금 너를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로 인해 엄마가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엄마도 도현이를 행복하게 해줄게.  
 너를 위한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 도현이가 건강하기를 가장 바랐던 것 같아.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엄마는 끊임없이 기도할게.  
 또, 엄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길 기도해.  
 이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 도현아! 엄마 아빠에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너무너무너무 사랑해♥

# 윤슬, 다원아! 안녕?

김기근, 최은정 성도

**이 편지**가 우리 큰딸과 작은아들에게 처음으로 보내는 편지네...

엄마 아빠는 가끔 너무 빨리 성장해버린 너희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

어린 시절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잘 성장하고 있는 너희들이 대견하기도 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야.

처음 태어나던 날, 처음 걷던 날, 처음 말하던 날 등 수많은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 순간마다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했고 참 감격스러웠어.

이제 어엿한 초등학생이 된 윤슬이와, 꼬마에서 어느새 의젓한 어린이가 된 다원아!

앞으로 너희 앞날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날도 많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을 거야.

그것 또한 너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잘살아보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걸 잊지 말고.

윤슬, 다원아!

너무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잘 지내보자.

p.s.

윤슬이는 마음이 급해서 종종 실수할 때가 있지...

엄마도 그래.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힘써 보자.

다원아!

엄마는 우리 다원이 손톱을 깎아보는 게 소원이야...

초조하거나 심심할 때도 손톱 물어뜯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알러뷰~



가끔은 버럭 하지만 윤슬 다원을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 사랑하는 내 딸

## 서영이에게

이 현 진 집사



‘어린시절 귀여움 가득했던 서영이와 함께’

### 사랑하는 딸 서영아,

엄마랑 비밀일기를 쓰던 어린 시절 이후로, 이렇게 마음을 담아 길게 편지를 쓰는 건 참 오랜만인 것 같구나. 요즘 시험공부 하느라 많이 힘들지? 엄마는 그런 네 뒷모습을 볼 때마다 늘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뿐이란다.

엄마가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살뜰히 챙겨주지 못하는데도, 스스로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강아지 봄이 산책도 잊지 않는 너를 보며 엄마는 참 기특하고 놀라워. 한편으로는 ‘사춘기가 오면 어쩌나’ 걱정하며 주변에 조언을 구하기도 했지만, 신앙 안에서 순탄하게 성장해 주는 네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작년 비전트립을 통해 네 신앙이 한 뼘 더 깊어진 거야.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주님께서 너에게 어떤 비전과 감동을 주실지 엄마는 벌써부터 기대가 된단다.

요즘 엄마는 너와 가스펠을 듣는 시간이 참 행복해.

“엄마, 이 찬양 어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야.”

친구처럼 다가와 말을 건네는 네 목소리가 엄마에게는 큰 위로가 돼. 실은 엄마는 외할머니께 너처럼 살갑게 해드리지 못했거든. 그래서 네 고마운 마음이 때로는 미안함으로 다가오기도 한단다.

서영아, 엄마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앞으로 네가 걸어갈 모든 진로와 준비의 과정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자.

엄마가 고등학생 때 늘 붙들고 기도했던 이 말씀을 너에게도 선물하고 싶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너에게만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이 있기를 엄마도 함께 기도할게. 우리 가족 모두가 늘 너를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렴.

사랑한다, 서영아!

#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에게



안 미경 사모

아이들이라고 부르려고 보니 너희들 나이가 벌써 30을 넘어가는구나. 아이들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 나이가 되었지만, 엄마의 눈에는 너희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내 품 안에 안겨있던 아이로 느껴지니 그게 아마 부모의 마음일 거야.

지금 편지를 쓰려고 하니, 갓 태어나 엄마 품 안에서 꼬물거리던 너희들 모습이 생각나네. 첫걸음을 하던 순간,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 불러주던 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

너희들을 키우면서 엄마 아빠도 처음 부모가 되었기에, 실수도 있었고 잘못된 일도 많았지. 솔직히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끝없는 인내와 마음 다스림이 필요한 일이지. 그래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힘든 일, 슬픈 일, 기쁜 일 등 많은 일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겪으면서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엄마 아빠는 늘 너희 곁에서 사랑과 기도로 함께할 거야. 이 편지를 쓰면서 엄마는 너희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부탁하고 싶구나.

첫째,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이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또 엄마 아빠가,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기도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기억해 줘. 비록 그 응답이 너무 늦어지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니야.

둘째, 작은 행복, '소확행'을 소중히 여겨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희들 말로 '소확행'이라고 하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길 바래. 큰 성공이나 많은 물질,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밝은 미소,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일, 식구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한 끼의 식사, 좋아하는 친구들과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 등등 그런 순간들이 비록 소소해 보이지만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엄마는 지난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소소하고 소박한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 너희들도 그런 작은 순간순간들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길 바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누리는 축복일 거야.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과 만나서, 소박하지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엄마 아빠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너희들을 키웠어. 앞으로 너희들의 삶에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시길 기도하며 짧은 글을 마친다.

사랑하는 엄마가

# 토닥토닥 문화센터를 시작합니다!

- 아이들과 함께한 오후의 시간 -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토닥토닥 문화센터' 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두 달 동안 주일 오후가 아이들과 함께하며 웃고 머무는 따뜻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5월부터는 정식 운영이 시작되었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토닥토닥 문화센터는 주일 오후 1시 55분부터 3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또한 청장년 부모들이 안심하고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역할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서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교회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활동 시간에는 정해진 형식의 프로그램보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로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슬라이드를 만들며 웃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에는 미니 체육대회를 열어 뛰어놀고, 퀴즈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활동이 끝난 뒤에는 함께 간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더욱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토닥토닥 문화센터는 ‘잘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누군가는 활발하게 뛰어놀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시간을 보내지만, 그 모든 모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아이들은 그 안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서로를 알아갑니다. 꼭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며,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익숙한 기억으로 남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이후 곧바로 흠여지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머물며 이어지는 공동체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토닥토닥 문화센터가 아이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자리이자, 다시 오고 싶은 따뜻한 공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월부터 정식 운영을 통해 이 시간을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따뜻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웃고 어울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웃고, 즐거운 시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간** | 13:55 ~ 15:30

**장소** | 교육관 3층, 유년부실

**문의** | 이연 전도사



“요즘 운세, 무속...”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최근 대중문화에서는 한국의 무속과 샤머니즘이 더 이상 낯설고 주변적인 소재가 아니라, 익숙한 문화 코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작품들은 무속, 풍수, 원혼, 저승사자 같은 전통적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런 콘텐츠를 흥미롭게 소비할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운명, 기운, 영적 존재에 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상 속에서 운세를 확인하거나 사주와 타로를 찾는 모습으로도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가벼운 흥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미래를 알고 싶고 불안을 덜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유행으로 넘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할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Q1. 목사님, 여러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무속, 샤머니즘 소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요즘 유행이구나”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운세와 사주, 무속에 관심을 갖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불안입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을수록 사람은 빠르고 분명한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곳에서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영화나 드라마, OTT에 무속, 저승사자, 퇴마, 귀신 같은 소재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가법계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콘텐츠를 본다고 해서 무조건 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꼭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과 기준을 바꾸고 있는가?”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고 말씀합니다. 즉, 핵심은 금지보다 분별입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접하는 문화에 영향을 받고, 문화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조금씩 형성합니다.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경계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게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 Q2.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신명기 18:9)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점술과 복술, 길흉을 말하는 일과 신접한 행위를 분명히 금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당시 이방 민족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문화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방향과 미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맡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불안한 미래 앞에서 다른 힘에 기대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참된 평안과 소망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점술과 무속의 문제는 단순히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삶을 맡기려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금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헛된 두려움과 잘못된 의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 Q3. 그러면 운세 같은 것을 ‘재미로’ 보는 것도 안될까요?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재미로 한 번 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얼핏 보면 가벼운 호기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보는 행위’ 자체보다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는가’입니다. 운세, 타로를 재미로 볼 수 있으나, 그런 작은 접촉도 우리의 마음에 미약하게나마 영향을 줄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행동 하나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언 3:5)는 말씀처럼, 내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 Q4. 담임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미래가 불안할수록 사람은 자꾸 다른 답을 찾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미리 알아내는 데서 평안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더 진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쉽게 정죄하기보다, 더 분명한 믿음과 더 따뜻한 사랑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등포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멍청함,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김 난 경 목사

**우리**는 누구나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반드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처럼 목적지가 틀렸다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걸음은 낭비일 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예배도 잘 드렸고 수련회 등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제 인생이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은 저마다의 꿈을 이루며 인생을 펼쳐나갔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전도, 헌신,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 같은 저의 인생을 바라보며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고민하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자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고 성경 책을 펴자,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책, 강의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저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조금 그려지던 어느 날,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김양재 목사님은 의사와 결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지만, 고된 시집살이를 하며 가출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교회를 못 가게 하니 할 수 있는 것이 큐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큐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밍던 시어머님을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구원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의 고백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큐티가 뭐길래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단 말인가? 그래서 저는 서점에 가서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얇은 책 한 권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으로 시작한 큐티는 고집 세고 나뻛에 모르는 저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큐티는 능력 있는 설교자의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찬양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Quiet Time”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해진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핍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큐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멈춤의 시간이 쌓일 때 비로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는 분주한 일상에서 “멈춤”의 시간입니다. 이제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멈춰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멈춤의 시간 없이 세상을 따라 달려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거는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매일 멈춰서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곱씹는 묵상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알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으면 아무리 그 길이 멀고 험해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열심히 달려만 갈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방향을 잡는 길이 바로 큐티입니다. 바쁘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 앞에 멈춰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 서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복된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 The National Gallery의 그림을 보고 읽는 성경말씀

- 제1편, 베데스다 못의 예수님 -



홍 천 수 원장으로  
(제2남선, 여호수아속)



### 그림 제목

“베데스다 못에서 중풍 병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Christ healing the Paralytic at the Pool of  
Bethesda)” 1667-1670

### 화가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Bartolomé Esteban Murillo)  
(1617-1682, 스페인)

### 재료

캔버스에 유채  
런던 내셔널 갤러리 내 전시실 위치 :  
레벨 2(Level 2), 30번 전시실,  
소장 번호 : NG5931

## 배경

요한복음 5:2-9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는 행각 다섯이 있었고, 그곳에는 수 많은 병자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서 38년 동안이나 중풍을 앓아온 병자를 보시고 “네가 낫고 싶으냐?”고 물으셨습니다.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한탄합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라는 은혜의 말씀을 하시기 직전의 상태를 그린 것입니다.

## 그림 묘사

무리요가 그린 “베데스다 못에서 중풍 병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는 그림의 왼쪽 앞부분에 예수님, 세 제자와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

종교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결코 차갑거나 딱딱하지 않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정과 빛의 처리는 부드럽고 따뜻하여 감상자에게 위로를 줍니다.

## 빛과 어둠의 대비

빛과 어둠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예수님과 병자, 그리고 회랑 안쪽의 다른 병자들을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에 싸여 있어 신성함을 강조하며, 회랑 안쪽의 병자들은 어둠 속에 배치되어 그들의 고통과 희망 없음을 대비시켰습니다.

## 사실적인 묘사

무리요는 병자의 야윈 몸과 옷의 질감, 건축물의 디테일 등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스페인 바로크 미술의 특징인 사실주의를 잘 보여줍니다.

- 예수님은 보라색 겹옷과 짙은 파란색 망토를 두르고 서 계십니다. 인자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아래로 굽어보며, 오른손을 병자에게 뻗고 계십니다. 이는 그의 전능한 치유의 능력과 무한한 자비를 상징합니다. 무리요가 표현한 예수상은 당시 스페인 세비야 화가가 정립한 전형적인 그리스도상을 따랐으며, 더하여 무리요 특유의 ‘바포로소(Vaporoso, 안개가 낀 듯 부드러운)’ 화풍이 예수님의 모습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피부와 보라색 옷의 조화는 초자연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그림 속 예수님은 특정 모델을 보고 그린 ‘초상화’라기보다는, 성경 속 신성을 표현하기 위해 무리요가 정교하게 다듬은 ‘이상적인 형상’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 중풍 병자는 바닥에 누워있으며 긴 세월 병으로 야윈 몸에, 머리에는 수건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벌려 자기의 무력함을 나타내며 간절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우측 어깨 쪽에는 깨어진 항아리와 접시 또 목발이 있어 오랜 연못가 생활을 짐작하게 합니다. 무리요는 중풍 병자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세비야 거리에서 늘상 마주치는 실제 환자나 빈민들을 관찰하여 그들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마른 근육을 화폭에 옮겼을 가능성이 큼니다.
- 세 제자 : 예수님의 오른편 조금 뒤로 세 명의 제자가 서 있습니다. 세 제자 모두 병자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자가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는 증인(Witness)의 역할을 합니다. 세 제자는 베드로 (주황색 옷), 요한(짧은 제자), 야고보 또는 안드레 (뒷편)로 추정합니다. 세 제자는 역시 당시 스페인 남성들의 전형적인 얼굴형을 보여줍니다. 특정 귀족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빌려와 성스러운 장면의 현실감을 극대화했습니다.

- **베데스다 못가의 배경** : 당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은 실용적인 저수지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그림 속 베데스다 못은 사방이 거대한 석조 기둥과 아치형 회랑(Colonnade)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연못 부분은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트여 있는 웅장한 구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당시 유럽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웅장한 고전주의 양식의 회랑으로 화가 무리요가 재해석한 것입니다. 다른 많은 환자들은 회랑 저 안쪽과 멀리 계단 아래에 누워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못 위의 탁 트인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특히 회랑 위쪽 구름 사이로 작은 천사가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물을 움직이게 하는 천사의 전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개** : 그림 오른쪽 앞부분에 있는 개는 당시 무리요 그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로, 그림에 사실감을 더하고 구도를 완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개는 마치 관람객 쪽을 슬쩍 보거나 바닥을 향하며 이 장엄한 기적의 순간에 일상적인 사실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화가 무리요의 화풍과 예술적 특징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Bartolomé Esteban Murillo)는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입니다. 그는 스페인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화가로, 특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종교화와 인간적인 성모상으로 당대와 후대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리요는 당시 스페인의 무역과 종교 중심지인 세비야에서 활동하였으며, 그 도시의 신앙적·사회적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한 화가였고 또 서민과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리의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특히, 병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이들을 따뜻하게 그린 점에서 기독교의 ‘자비’ 정신을 가장 잘 시각화한 화가로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그려낸 스페인 바로크 화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경우와 초기 전시장소

이 그림은 무리요가 세비야의 ‘카리다드 형제회(Hermandad de la Caridad)’라는 단체의 공식적인 의뢰와 후원자의 기획 아래 제작된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핵심 후원자는 카리다드 형제회의 회장이었던 미구엘 데 마냐라 (Miguel de Mañara)이며, 기독교의 ‘자선 활동(Acts of Charity)’을 표현하기 위한 작품 6점의 연작을 기획하여, 당대 최고의 화가이며 친구인 무리요에게 의뢰했습니다. 이 자선 활동은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의 일곱 가지 행동(Seven

Corporal Works of Mercy)’ 중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선 활동들을 성경 속 사건에 빗대어 묘사한 것입니다. 이 작품들은 스페인 세비아의 카리다드 형제회(Confraternity of the Caridad) 성당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성당은 당시 세비아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모여 치료받던 구호 병원으로 운영되었던 성당이었습니다. 연작이 이곳에 전시된 의도는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실천’의 중요성을 그림으로 강렬하게 느껴 부유한 방문객들에게 기부를 독려하기 위함이었으며, 또 환자들에게는 회복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후원자 미구엘 데 마나라는 원래 세비아의 부유한 귀족이었으나,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내의 죽음 이후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내놓았고, 형제회를 이끌며 병원과 성당을 세웠습니다. 제작 비용은 미구엘 데 마나라의 개인 기부금과 형제회 소속의 부유한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요약

‘베데스다 못에서 중풍 병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걸작 중 하나로 성경 속 이야기를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가 자신 특유의 부드럽고 감성적인 화풍으로 담아낸 대표작입니다.

즉 이 그림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순간을 완벽하게 묘사한 작품이며, 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꼭 받고야 말겠다는 38년 된 중풍병자의 간절함을 잘 표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편 〈베데스다 못의 중풍병자〉는, 한때 오만했던 귀족 마나라가 “나 또한 38년 된 병자처럼 영적으로 마비된 자였으나 신의 자비로 치유 받았다”라는 고백을 절친한 친구인 화가 무리요의 붓을 빌려 세상에 알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후기

성경 내용을 그린 그림을 감상할 때, 화가는 어떤 분인지, 어떤 의도로 그렸는지, 모델은 누구인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의뢰하였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 글은 AI를 이용하여 찾은 자료를 요약 정리했으며, 그림의 사진은 글쓴이가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림으로 보는 말씀’을 몇 차례 더 소개하고자 하오니 목상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화로 만나보는 복음

색으로 읽는 성경과 성화



이 현민 청년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재학 중)

“하늘 아래 같은 색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같은 푸른색이라도 어떤 것은 심해처럼 깊고, 어떤 것은 하늘의 구름처럼 가볍고 맑다. 우리가 같은 단어로 묶고 있는 색들은 사용된 시대와 그것을 이루는 물질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미와 깊이를 가진다. 그렇다면 성경과 성화 속에 등장하는 색들은 어떤 까? 우리는 이 색채들 또한 단순한 묘사를 넘어선 상징의 언어로 읽을 수 있다. 지금부터 성경이라는 거대한 작품을 구성하는 다양한 색의 의미와 이들이 성화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헤쳐 보자.

청색 - 하늘과 계명의 색

성경에서 청색은 히브리어로 ‘테켈렛(תְּכֵלֶת)’이라고 불리며, 하늘과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한다. 중세와 르네상스 성화의 <수태고지>에서 성모 마리아가 입을 옷에 쓰인 푸른색은 청금석(Lapis Lazuli)에서 얻은 ‘울트라 마린’이라는 안료로, 성화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진 청색이다. 그러므로 수태고지에서 성모 마리아의 파란 옷은 ‘가장 값비싼 색’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신성함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한편,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하늘, 배경, 단순한 의복 등에 널리 쓰인 ‘아주라이트’라는 광물 안료도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에 사용되었는데, 프레스코(벽화)에서 하늘과 같이 넓은 면적을 전부 비싼 울트라마린으로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화가들이 같은 색 안에서도 작품 속 대상이 지닌 상징성과 용도에 따라 다른 안료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값비싼 울트라마린이든, 비교적 소박한 아주라이트든, 전부 테켈렛의 빛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 색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상징과 용도가 조금씩 다를지라도 청색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신비를 드러내는 하늘의 색이다.



좌 : The Annunciation, Fra Angelico, 1440-1445

우 : Sistine Chapel ceiling, Michelangelo, 1508-1512

## 붉은색 - 죄와 구속의 색

붉은색은 히브리어로 ‘샤니(שָׁנִי)’ 혹은 ‘아돔(אָדָם)’이라고 불리며, 성경에서 가장 강렬한 상징을 가진 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피와 생명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붉은 옷은 곧 다가올 십자가 희생을 암시한다. 또한, 예수님의 옷은 제자들의 붉은 옷보다 더욱 깊고 선명한 빛깔을 띠고 있는데, 이는 중세의 대표적인 붉은 안료인 ‘버밀리온’ 위에 ‘레드 레이크’로 글 레이징을 한 조합이다. 버밀리온(Vermilion)은 황화수은에서 나온 선명하고 따뜻한 빨강이고, 레드 레이크(Red Lake)는 곤충과 식물 염료에서 나온 투명한 붉은색이다. 버밀리온 위에 레드 레이크를 얇게 덧바르는 조합은 선명한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십자가 사건의 중심이자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옷을 채색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한편, 마티아스 그뤼네발트의 <이젠하임 제단화>에서는 음울하고 병적인 붉은 톤이 강조되는데, 이 또한 버밀리온과 레드 레이크의 조합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산화철에서 나온 ‘레드 오크(Red Ochre)’로 버밀리온 특유의 과한 채도를 눌러주며 더욱 심도 있는 붉은색을 나타낸다. 밝은 홍색부터 검정에 가까운 붉은색은 작품 내에서 죄를 드러냄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죽음과 고통의 무게까지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좌 : The Last Supper, Leonardo da Vinci, 1490 / 우 : Isenheim Altarpiece, Nikolaus Hagenauer, 1512-1516

## 자색 - 왕권과 역설의 색

자색은 히브리어로 ‘아르가만(אַרְגָּמָן)’이며, 지중해의 무렉스 고둥에서 추출한 ‘티리안 퍼플(Tyrian Purple)’이라는 매우 귀한 염료로 만들어진 왕과 권력의 색이었다. 이는 극도로 생산량이 적어 금과 맞먹는 가격이었으며, 고대 로마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최고로 권위 있는 색상으로 여겨졌다(참고로 회화에서는 이 염료를 그대로 쓰기 어려웠기에, 보통은 청색과 붉은색을 혼합하여 자색을 만들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붉은색에 더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 15세기 프랑스 화가인 장 푸케의 <멜룬 디프티>에서는 맨 왼쪽에 위치한



좌 : Melun Diptych, Jean Fouquet, 1450s / 우 : The Crowning with Thorns, Caravaggio, 1602-1607

작품의 의뢰인이 자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다. 왕권에 가까운 고위 귀족이었던 그는 옷의 색상으로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자색은 고난과 조롱의 장면에서 등장하는데, 카라바조의 <가시관을 쓰시는 그리스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중앙의 예수님은 고통을 견디며 고개를 숙이고 있고, 주변 병사들이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며 조롱한다. 예수님이 걸치고 있는 자색 천은 '세상이 조롱한 왕'이지만 결국 '참된 왕'이라는 역설을 드러낸다. 이처럼 자색은 권위의 색이면서, 그 권위가 어떻게 왜곡되고 세상으로부터 거부되는지를 보여주는 색이기도 하다.

### 녹색 - 생명과 심의 색

녹색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강조되는 색은 아니지만, 생명과 회복의 이미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에서 '녹색'을 하나의 단어로 고정해서 쓰지 않고 풀과 나무, 그리고 생명의 상태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로 '데쉐(דֶשֶׁת)'는 풀과 새싹을 의미하며, 이는 시편 23장 2절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구절에 쓰인 단어이다. 무성한 푸르름을 뜻하는 '리아난(רִיאָנָן)'이라는 단어도 녹색을 나타내는 데에 종종 사용되었다. 성화에서 녹색 안료는 주로 구리 탄산염 광물에서 나온 '말라카이트(Malachite)'로 제작하였고, 구리 녹에서 생성된 '베르디그리스(Verdigris)' 안료도 널리 쓰였다고 한다. 다만, 구리에서 추출된 녹색은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변색되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작품들의 녹색은 다소 탁하게 보일 수 있다. 성화에서 녹색은 주로 낙원과 초원을 상징하며, 북유럽 르네상스 회화의 대표 걸작인 안반 에이크의 <젠트 제단화>에서는 중앙 패널에 선명한 녹색 초원을 그려 넣어 구원 이후의 세계를 표현했다. 제단 위의 어린 양은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의 구원과 부활의 생명력을 끝없이 이어지는 초원을 통해 나타냈다. 또한, 이러한 녹색 배경은 고요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강조함과 동시에, 신학적 메시지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Ghent Altarpiece, Jan van Eyck, Hubert van Eyck, 1432

지금까지 성경과 성화 속 주요 색채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같은 이름을 가진 색깔들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성경에서의 색들은 시대와 재료, 그리고 그 위의 신앙적 교백에 따라 끊임없이 변주하는 생명의 언어이며,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로 연결된다. 하늘의 신성함을 담은 푸른색, 희생을 의미하는 붉은색, 왕권의 높음과 낮아지심을 함께 품은 자색, 그리고 회복과 생명을 드러내는 녹색은 모두 각기 다른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도 이를 기억하며, 각자의 삶이 다채로운 빛을 뱉고 동시에 은혜의 색으로 함께 물들어 갈 수 있길 소망한다.

다음세대를 함께 세워가는 영중교회학교

## 예배와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중교회학교

2026년을 시작하며 영중교회학교는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힘썼습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등 저마다에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부흥회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중교회학교는 시종일관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나눠주기를 목표로 합니다:

- “하나님께서 너를 참 많이 사랑하셔. 너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야.”
-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그 사실을 드러내주셨어.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기도해!”
- “너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동행하실거야.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자!”

영중교회학교의 주일예배와 다양한 교제와 활동들도 이와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가정 안에서도 항상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이 다가옵니다. 아래와 같이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오니, 미리 참고하여 일정을 조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영중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

유치부 성경학교	7. 25 ~ 26 ☞ 교회	유년부 성경학교	7. 25 ~ 26 ☞ 교회
초등부 수련회	7. 31 ~ 8. 2 ☞ 수도원	청소년부 수련회	8. 2 ~ 4 ☞ 수도원



# 01

## 영아부

# 믿음의 씨앗이 쑥쑥, 사랑의 열매가 조랑조랑



2026년 영아부는 작고 귀여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심겨, 몸과 마음, 지혜와 믿음이 눈부시게 성장하는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 올해의 주제 및 주제성구

올해의 주제는 ‘믿음의 씨앗이 자라요’입니다. 지난해 주제였던 ‘믿음의 씨앗을 심어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해는 심긴 씨앗이 움트고 성장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자라며 지혜와 강건함이 더해졌듯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매일매일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제성구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눅 2:40)로 정했습니다.

### 하나님의 사랑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활동

설 명절에는 프라이팬에 전 모형을 부치고 예쁘게 차려보며 풍성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 늘 밝게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노란 스마일 풍선을 정성껏 꾸며보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무드등을 만들었고, 우리의 어린양 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며 폭신평신했던 양을 꾸미는 활동을 통해 사랑을 배웠습니다. 부활절에는 다시 사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알록달록 부활 달걀을 꾸미며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 영아부 예배 안내

영아부 예배는 매달 마지막 주일에 드려집니다(특별절기와 행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작은 손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장소 : 본당 자모실
- 대상 : 1~4세 영아 및 보호자



#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영중새싹

## 겨울성경학교 '믿음, 소망, 사랑'

이번 유치부 겨울성경학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에 맞는 주제로 각각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을 배웠습니다. 눈앞에 비가 오지 않아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모습을 나누며, 세상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듣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기를 씩씩하게 다짐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에는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간 아브라함의 '소망'을 배웠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아이들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낯설 수 있었지만, 반복해서 부르고 찬양하며 그에게 주신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이 곧 우리 아이들의 소망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학교의 중심 주제인 ‘사랑’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가장 귀한 보물임을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학교 동안 아이들의 입술로 고백한 믿음과 마음에 품은 소망, 그리고 삶으로 경험한 사랑이 평생을 지키는 든든한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아이들의 순수한 신앙 고백이 각 가정에 따뜻한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며,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자라나는 영종새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부활절 연합 예배

부활절을 맞이하여, 유치부와 유년부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기쁨을 온몸으로 경험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예배에서는 슬퍼하던 마리아를 찾아와 그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 주셨던 부활의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단지 성경 속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계시며 우리 곁에서 함께하시는 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





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아이들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유치부와 유년부가 함께 드린 이번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의 의젓함과 유치부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어우러지며 예배당은 생동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임을 자연스럽게 배워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유치부와 유년부가 함께 팀을 이루어 코스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유년부 친구들이 유치부 친구들을 배려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 속에서 기쁨이 넘쳤고,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의미를 경험했습니다.

유치부와 유년부가 함께 드린 부활의 찬양이 아이들 마음 밭에 귀한 씨앗으로 심어졌습니다. 이 씨앗이 가정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씩씩하고 당당하게 부활을 전하는 유년부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3

유년부

# '손잡고', 함께했던 영중하늘



## 유년부 겨울성경학교 '손잡고'

2026년 유년부 겨울성경학교는 '손잡고'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했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는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웃고, 함께 움직이며 '함께'의 의미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아이스브레이킹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팀을 이루어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맞춰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아는 것을 넘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친구의 손을 잡는 용기를 배우는 시간이었고, 교사들에게는 다시 한번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함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유년부 공동체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한 걸음 더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들도 느꼈어요!

**심하림** ▶ 아이들과 함께하는 첫 수련회였는데 아이들과 하루 종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진우** ▶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참으로 따뜻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웃고 활동하는 가운데 점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통해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통해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부장님** ▶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부장 박만기 집사입니다. 초등부 교사로 섬기다가 유년부 부장으로 맡게 되며 감사한 마음과 함께 부담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유년부 친구들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놀 때 정신이 없을 때도 있지만, 조금씩 커가는 모습에 흐뭇함과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리라 믿고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유년부 생활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 다음 세대에 영등포중앙교회를 책임질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도와 열심으로 준비하는 유년부 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며

이번 사순절 동안 유년부는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아이들과 함께 따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해, 사랑과 기다림, 용서를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마음에 담아갔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의 기쁨을 지나 십자가의 길 앞에 서게 되었고, 마침내 부활의 기쁨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는 것을 넘어, 조금씩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다양한 활동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걸었던 이 길이 오래 기억에 남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선생님도 배웠어요!

**임동한 선생님** → 이전에는 아이들을 대하는 게 조심스럽고 어렵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사순절을 보내며, 이제는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김지효 선생님** → 유년부 교사로서 이번 사순절을 함께 보내며 아이들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나누는 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며 저 또한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하나님을 사랑하며 '업그레이드'되는 영중나무

### 겨울수련회 '업그레이드'

추운 겨울을 지나며 우리는 꽃과 풀들이 새롭게 돋아나는 봄을 기다립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 움츠리고 있던 생명들이 봄을 맞이할 때, 기지개를 켜며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봄이 되면 자연이 한 단계 더 성장하듯,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업그레이드'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번 초등부 겨울수련회는 새로운 학년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박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세워 가도록 돕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초등부 겨울수련회는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웨슬리 수도원과 고양 스포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집회를 통해 아이들은 즐겁게 교제하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기로 결단한 초등부 아이들의 기도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박주은(4학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마주칠 때 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꿈을 위해 연습하고 노력하게 해주세요.

**최은하(4학년)**

하나님, 저도 걸모습만 보지 않고,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박주안(5학년)**

하나님, 우리를 항상 바른길로 인도해 주세요. 수련회를 통해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 준(5학년)**

하나님, 올해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끔 의문이 생기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여쭙어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은설(6학년)**

하나님, 제가 어느새 6학년이 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힘든 일도 점점 많아질 텐데, 항상 저의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사순절 프로그램(묵상집 & 종려주일 연극)

초등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사랑 모험단’의 용감한 대원이 될 것을 서약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길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묵상집을 매일 한 장씩 읽고, 풀고, 쓰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인간의 모습에서 시작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 후반, 종려주일에는 초등부 교사들이 준비한 연극을 진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장면을 재현하며, 아이들과 함께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연극에 집중하며 큰 관심을 보였고, 이후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의 시작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가 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를 외치던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게 됩니다.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 초등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는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친구는 평소보다 먹는 것을 절제하기로 결정했고, 또 다른 친구는 소중하게 여기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교회학교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자세히, 정확히 알아가며, 그 사랑을 전하여 교회학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영중등대



## 겨울수련회 '나, 너, 우리'

2026년 청소년부 겨울수련회는 '나, 너, 우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데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천천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첫날에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팀별 활동을 통해 어색했던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분위기도 함께 웃고 움직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풀어졌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저녁 집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된 나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내가 바라보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둘째 날에는 '나, 너, 우리'라는 주제를 다양한 활동으로 풀어나며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그려 보며 같은 대상도 각기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팀별 미션과 협동 활동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라는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 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에서는 복음을 통해 관계의 회복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수련회를 마무리하며 말씀과 활동을 통해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각자의 삶에 어떻게





이어갈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소년들은 ‘나’의 정체성을 다시 바라보고, ‘너’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하며, ‘우리’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고민과 결단이 일상에서도 이어져,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간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김민규  
(고3)

이번 겨울수련회를 통해 저는 ‘나, 너, 우리’라는 주제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에서 한 누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든 병을 겪는 가운데서도 매일 감사의 일기를 써 내려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그동안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너’를 향한 마음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모여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 고난주일예배

청소년부는 고난주일을 맞아 특별예배를 드리며, 고난주간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예배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설교 후 이어진 묵상 시간에는 오감을 활용한 묵상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했습니다. 쓴맛과 단맛을 통해 고난과 부활을 떠올리고, 십자가와 못을 만지며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했습니다. 또한 소리와 향기, 빛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 이후에는 기도문과 결단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고, 고난주간을 보내며 실천할 결단을 적어 십자가에 붙이며 각자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번 고난주일 예배를 통해 청소년들은 예수님의 길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으로 따라가야 할 길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 동안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김은찬  
(고3)

이번 종려주일 예배는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드러져, 저에게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호산나' 찬양을 받으셨지만, 곧 고난의 길로 나아가셨다는 의미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배에서는 오감을 활용한 묵상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못을 만지며 예수님께서 겪으셨을 고통을 묵상했고, 이전보다 그 고난을 더 가까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묵상 이후에는 기도문과 결단문을 작성하며,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 사랑을 삶으로 이어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젊은이교회

## 겨울수련회 : 김현정

2026년 2월 6-8일(금-주일), 청년들은 강화 웨슬리 수도원으로 2박 3일간 젊은이교회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의 기억에 이번 수련회는 최고의 참여율을 보인 수련회였습니다. 이전에는 하루만 참석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오가는 청년들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전 일정에 참여해 더욱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의 주제는 ‘기대’였습니다. ‘기도, 기대, 견딤, 기다림’의 의미를 담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기도 시간이 짧았다는 청년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이번 수련회에서는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몇몇 청년들이 기도 인도를 맡아 다양한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많은 청년이 큰 기대를 안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없었던 고품질의 아침 식사인 연어샐러드도 기억에 남습니다. 점심에는 수도원 근처에 있는 보리밥 식당을 방문했는데, 식당 주인 부부께서 기타와 드럼으로 공연을 해주어 더욱 유쾌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음 여름 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으며, 기도하며 견디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기도로 준비해 주신 목회자분들과 함께 섬겨 준 청년들, 그리고 식사로 섬겨 주신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회개’라는 주제로 기도 인도를 준비하며, 일상 속 세속적인 욕심들을 회개하고 저의 내면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든 결국 하나님 안에서 모두 이겨낼 수 있음을 다시금 확신하게 된 감사한 겨울수련회였습니다. - 이지원





## 홀리데이 워십팀 MT

### 문승준

지난 2월 20일(금)부터 21일(토)까지, 영증젊은이교회 홀리데이 워십팀은 강화 웨슬리수도원으로 MT를 다녀왔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이번 MT의 핵심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팀은 예배의 ‘문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지기가 입구를 지키며 거룩함과 질서를 유지하듯, 찬양팀은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 찬양을 통해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팀원들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MT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맡겨진 자리에 끝까지 충실할 수 있을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데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교육과 깊은 나눔의 시간을 통해, 팀원 모두가 동일한 비전을 품고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치지 않고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헌신하고 싶을 때, 부담 없는 선에서만 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기회가 주어져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역할이었음에도 이번 섬김을 통해, 제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이 결국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 덕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묵묵히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 김지욱

교육 시간을 통해 찬양팀이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팀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돕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자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 있는지에 대해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개인적인 준비를 넘어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을 세심하게 살피고,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적인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이후 이어진 야식 시간에는 함께 음식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를 함께 섬기는 공동체로서 진솔한 대화와 웃음을 나누며, 우리 서로의 관계가 한층 더 단단하고 끈끈해지는 밤이었습니다.

이번 MT는 찬양팀으로서의 역할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늘 마음에 새기며 섬기는 팀원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항상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애써주시는 팀원들과 든든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주원**

MT 준비단으로서 설레는 마음으로 일정을 준비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지만, 특히 이튿날 아침의 깊은 나눔과 점심 식사 후 카페에서 이어졌던 대화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날의 여운을 안고 맞이한 아침, 팀원들이 정성껏 준비해 준 브런치는 마치 유럽에 온 듯한 여유를 선사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모여 찬양팀의 영적·음악적 준비와 새롭게 변화된 예배 형식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각 파트의 건의 사항을 나누며 팀원들이 기대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를 열망하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형식을 넘어 찬양의 본질을 고민하게 했고, 저의 예배 태도 또한 돌아보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로 오리고기를 맛있게 먹은 후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못다 한 삶의 이야기와 신앙적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추억부터 찬양팀원으로서 겪는 고충, 그리고 목사님·전도사님과 나누는 깊이 있는 신앙 질문들까지, 다채로운 대화 속에서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깊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와 직업은 제각각이지만, 이번 MT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다시금 고백했습니다. ‘예배’와 ‘찬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팀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만들어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아리 활동 : 마라톤

류성현

처음에는 10km를 가볍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5km 연습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겨낼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 준 청년부 친구들을 떠올리며 다시 달려봅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은

행복한가게 마라톤을 참여하면서 청년들과 더욱 친밀해지고, 함께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돕는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완주와 함께 뿌듯함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박현우

젊은교회스포츠 동아리 SC하나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마라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마라톤은 경쟁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함께 달린 형제자매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미 있는 기회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 · 장로 · 청년 간담회

청년들의 지혜를 수용하고,  
장로들의 경험이 흐르는

## 영등포중앙교회를 꿈꿉니다!

**올해**로 창립 9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등포중앙교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깊은 뿌리 위에 젊은이교회(청년부)가 크게 성장하였고, 여전히 새롭게 방문하고, 등록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추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 속에서 교회는 결코 현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1일, 특별하고 따뜻한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케냐 단기선교에서 청년들의 열정에 감명을 받으신 한 장로님의 건의를 시작으로,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과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젊은이교회 임원진이 한자리에 모여 교회의 미래를 논의하는 ‘목회자-장로-청년 간담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허심탄화하게 나누었던 안전하고 수평적인 소통의 현장, 그 은혜로운 나눔의 결과들을 성도님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 1. 함께 그려나가는 교회 공동체

리모델링 이후 청년들의 예배가 본당에서 ‘4부 예배’로 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 간에 더욱 친밀감이 생기는 등 많은 장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교회의 굼직한 행사로 인하여 젊은이교회의 예배 장소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때, 교회는 절차를 밟아 양해를 구했다고 생각한 반면, 청년들은 이를 다소 일방적인 결정으로 느끼는 ‘소통의 온도차’가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교회의 주요 일정을 조율할 때는 장로님들과 청년 임원진들이 더욱 깊이 논의하고, 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2. 청년들의 헌신에 응답하는 든든한 교회 울타리

청년들의 헌금 비율은 현재 예산 대비 55.4%를 초과하며 놀라운 헌신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교회에 와보면, 청년들이 북적북적 거리고, 예배를 위한 다양한 헌신



과 교회학교 교사, 적극적인 선교 사역 등으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청년 임원들은 헌신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고충들을 털어놓았고, 장로님들은 이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청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데, 다른 부가적인 것들이 무엇이 중요하냐”며 더욱 풍성한 공동체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역 기획 시 교회가 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 3. 피아노를 매일 10cm씩 옮기듯

청년들이 청장년부의 나이가 되었을 때, 뜨거운 청년 예배와 전통적인 기성 예배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에 대해서도 깊은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에 모두가 함께 긴 호흡을 가지고 장년층의 클래식한 예배와 젊은 세대의 찬양 중심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융합적인 예배 환경을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기획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성도님들께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매일 피아노를 10cm씩 옮기는’ 세심한 배려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였습니다.

### 4. 밥 한 끼의 따뜻함으로 이어지는 세대 간 스킨십

취업과 진로 등 현실의 고민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딱딱한 프로그램보다는 장로님, 권사님들과 소규모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일상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청년들도 장년 성도님들을 더욱 공경하고, 장년 성도님들도 더욱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점진적이고 따뜻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귀한 나눔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임과 소통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현재의 부흥에 안주하지 않고, 청년들의 지혜를 수용하며 장년층의 경륜이 청년들을 품어주는 영등포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영 중 게 시 판

YEONGDEUNGPO CENTRAL METHODIST CHURCH



## 두 배 부흥 전도 축제일

2025년 11월 16일(주일), 3달간 기도로 준비했던 두 배 부흥 전도 축제가 진행되었다. 49명의 새가족이 교회를 방문하였고 특별공연으로 기쁘게 환영하였다.



## 새아기 환영



11/23 방하온 아기  
(부 : 방건석, 모 : 양소인)



11/23 이주아 아기  
(부 : 이은복, 모 : 성나라)



12/14 이하빈 아기  
(부 : 이충휘, 모 : 정다혜)

## 속회별 찬양제

2025년 11월 30일(주일), 한 해 동안 울고 웃으며 신앙을 나누는 속회원들과 '속회별 찬양제'를 진행하며 해를 마무리하였다. 정성과 열정을 다해 준비해 주셔서 각 속회별로 특색있는 무대를 보여주셨다. 웃음꽃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 새가족 환영회

2025년 12월 14일(주일), 교육관 6층 엠부카페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다. 19명의 새가족을 환영하며 축복하고 식탁교제를 나누었다.



### 남선교회 일일 수련회

2025년 12월 20일(토), 본당 1층 베넬성전에서 남선교회 일일 수련회를 진행했다.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도회와 특강이 있었으며, 오늘날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시대적 변화들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케냐 선교의 날

2025년 12월 21일(주일)을 '케냐 선교의 날'로 정하여, 케냐 선교에 관심 있는 교우들과 케냐 선교의 현황 및 미래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성탄절 세례 및 성탄 발표회

2025년 12월 21일(주일), 3부 예배 때 세례 입교식을 진행하였다. 12월 25일(목) 성탄절에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성탄축하예배를 드렸고, 예배 후에는 각 부서가 준비한 성탄발표회가 있었다.

〈세례〉 방하온 아기, 이하빈 아기, 김율리 청년 〈입교〉 이예희, 이도현, 김도유, 장서윤 청년



## 목회자 이임, 부임

2025년 12월 28일(주일) 이지석 전도사가 이임하시고(오곡감리교회 부임), 1월 4일(주일)에는 이원형 목사와 박종률 전도사가 본 교회로 부임하셨다.

3월 1일(주일) 방건석 전도사가 이임하셨고(인천 참교회 부임), 4월 12일(주일)에는 김성중 목사가 이임하시고 강화 창리감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셨다.



## 권사·집사 취임식

1월 25일(주일), 신천권사 10명과 신천집사 4명의 취임식이 있었고 이들을 대표하여 오종석 권사께서 답사를 해주셨다.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권사〉 강경옥, 권지선, 박미정, 신인근, 오종석, 윤지영, 은진화, 임은미, 최유진, 최진하  
 〈집사〉 박유나, 송광현, 이우탁, 최영운

### 오종석 신천권사

먼저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를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맡겨 주신 에베에셀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귀한 축사로 저희를 권면해 주신 김성범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며, 삶으로 응답하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 담임목사님을 통해 주신 “순종이 곧 믿음이며, 그 순종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라는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처럼, 화려한 제사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 역시 담임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든든한 동역자가 되며, 성도님들을 사랑과 기도로 섬기는 신실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2주간 담임목사님을 통해 배운 임원의 5대 생활, 곧 예배·전도·양육·봉사, 그리고 헌금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언제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취임하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가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으로 세워 주신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반기 장학금 수여

2월 1일(주일), 상반기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케냐 엠부지역 장학생 3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장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생〉

(중등)박서우, 양윤서 (대학)김도유, 김제인, 임동환 (케냐) Wanyaga, Wachira, Wincate



### 전교인 윷놀이 대회

2월 8일(주일), 남선교회 주관으로 전교인 윷놀이대회를 진행하였다. 총 20팀이 즐겁게 참여하는 시간이었다.



### 영등포 지방회

2월 22일(주일), 우리 교회에서 제40회 영등포 지방회가 열렸다. 은퇴장로님을 격려하고 신천장로님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세빛 전도사의 준회원 허입을 진행하였다.

〈은퇴장로〉 조영재, 박영자, 이창우, 우종화

〈신천장로〉 정창영, 조은정, 김세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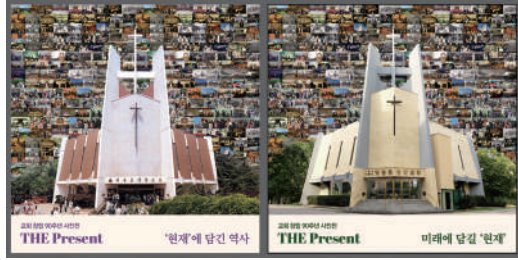
### 사순절 특별행사

1. 사순절 4인 4색 영성집회(3/4: 이원행 목사, 3/11: 신승민 목사, 3/18 김난경 목사, 3/25: 김성중 목사)
2. 사순절기 일일 영성집회(3/22: 박신일 목사)
3. 갓송과 함께하는 찬양예배(4/1)
4.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3/30-4/4: 최태수 담임목사 '나를 움직이는 십자가')
5. 교회학교 성금요일 예배(4/3)



##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 역사 사진전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 역사 사진전을 3월 1일(주일)부터 본당 계단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란다.



## 야외 연합속회

4월 24일(금), 강화 교동도로 야외 연합속회를 다녀왔다. '평화통일 기도의 집'에 들러 북한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한 후, 화개정원에서 봄기운을 느끼며 콘테스트를 위한 사진 촬영 시간도 가졌다.



## 청장년부 소식

### ■ 성탄의 기쁨과 2026년의 비전 : '성탄 스페셜데이'

2025년 12월 25일(목), 성탄절을 맞이하여 청장년부 17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 스페셜데이' 시간을 가졌다. 구주 탄생의 기쁨을 나누며 시작된 이날 모임에서는 다가올 2026년 선교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공동체의 새로운 비전을 설계했다. 이어진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어우러져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즐겁고 복된 시간을 보냈다.



### ■ 5년의 섬김, 새로운 사역을 향한 축복 : '김성중 목사님 송별회'

지난 4월 12일(주일), 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주신 김성중 목사님의 마지막 사역을 배웅하며 청장년부가 모였다. 특히 지난 3년간 청장년부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되돌아보며,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 목사님의 앞길과 사역지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환하게 빛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드린다.



# 이원행 목사 부임 인터뷰

## 1. 자기소개

MBTI로 소개를 해야할까요? ^^ ISTJ? “사실 저는 심리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재미로 보는 성격 검사를 별로 신뢰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이 한 문장에 제 MBTI가 다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 타고난 성향은 내향적이지만, 목회를 하다보니 적당히 외향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나무 하나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성향이지만, 그러다가 그 안에서 다시 큰 숲을 발견하곤 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이라 감정이 메말라 보이지만, 이성에 기반한 공감은 잘 하는 편이죠.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계획적이지만,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즉흥적입니다! ^^ 저도 저를 잘 모르겠네요~^^ 그냥 저는 평범한 목사이고, 한 여인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 2.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계기는?

저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자리에 서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빨리 취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일반 대학교로 진학을 했다가, 결국 군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목회를 시작했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 영등포중앙교회에 있습니다! ^^

## 3. 목회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아저씨’라고 불렀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교회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매주 학교를 찾아갔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던 아이들은 저를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운동장 저쪽 끝에서부터, “아저씨!”라고 소리치며 간식을 받으러 오던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를 날을 기대하며, 재미있게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처 전도하지 못하고 사역지를 옮겼던 아쉬움과 그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 4.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으신지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목회의 방향은 꼭 필요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강하게 앞서면 금방 잘못 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굉장히 치열하게, 하지만 벅찬 기쁨으로 살아가는 목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가 아닐까요?

## 김성중 목사 이임 인사

지난 5년 동안 영등포중앙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것은 제게 큰 감사이자 은혜였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처음** 일본에서 8년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영등포중앙교회에 왔을 때는 많이 부족했고 경험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저를 따뜻하게 받아 주셨고, 성도님들께서 함께 걸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역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목회의 기쁨과 책임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담임목사님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목회를 대하는 태도와 교회를 향한 마음,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자세에 대해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은 제게 큰 유익이었습니다. 또한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덕분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원로장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며 지금의 영등포중앙교회를 세워 오신 믿음의 모습은 제게 큰 배움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깊은 애정과 기도의 마음, 그리고 후배 목회자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던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몸으로 살아내신 원로장로님들의 헌신 위에 지금의 공동체가 세워져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청장년 선교회를 다시 세워가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았던 시간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모이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며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애써 주셨던 많은 청장년 식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조금씩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공동체를 세워갔던 시간은 제게 매우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교회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만나게 된 많은 장년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 역시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웃고 대화하며 삶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마음이 깊어졌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서로의 시선

을 배우고, 영화를 보며 삶을 돌아보고, 뮤지컬을 함께 준비하며 기쁨을 나누고, 운동하며 서로를 격려했던 시간 속에서 쌓인 사랑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



니라 서로의 삶을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배려 속에서 목회자로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기억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시간들,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던 순간들, 사역을 위해 함께 고민했던 시간들이 제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동시에 더 잘 섬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순간들,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이 떠오르며 송구한 마음도 함께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강화 창리감리교회라는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지만, 영등포중앙교회에서 배운 믿음의 태도와 섬김의 자세를 마음에 새기며 더욱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목회하고자 합니다. 설교자로서 더 깊이 준비하고, 상담가로서 더 따뜻하게 경청하며, 기도자로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리에서 겸손히 배우고 충실히 섬기겠습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등포중앙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다음 세대와 지역과 열방을 향한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영등포중앙교회 성도님들과 그동안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교우소식

YEONGDEUNGPO CENTRAL METHODIST CHURCH



## 새 교우

전학림 성도(여)	11부 여선
심혜진 청년(여)	
이민희 성도(여)	13부 여선
최미애 성도(여)	9부 여선
박견남 성도(여)	1부 여선
김지성 성도(남)	청장년
정미선 성도(여)	16부 여선
김혁중 성도(남)	청장년
김수진 성도(여)	16부 여선
박이안 청년(남)	젊은이교회
정복순 집사(여)	6부 여선
이정림 성도(여)	13부 여선
류현열 성도(남)	청장년
이은주 성도(여)	13부 여선
하재영 청년(남)	젊은이교회
이은정 청년(여)	젊은이교회
정재우 청년(남)	젊은이교회
박종호 집사(남)	6부 남선
김소진 집사(여)	12부 여선
장현민 집사(남)	청장년
정진형 집사(여)	16부 여선
진현정 성도(여)	16부 여선

## 장례

김영희 권사 남편상	11/29
유소영 권사 부친상(이승찬 권사 장인상)	2/3
정을분 권사 소천(김경운 권사 부인상, 김희수 권사 모친상, 김순영 권사 시모상)	2/13
김소미 집사 부친상(고광덕 집사 장인상)	3/18

## 결혼

오유진(오천근, 김현주a 권사 장녀)	2/28
강민지(강석우 집사, 이현주 권사 차녀)	3/22

## 출산

최승아, 김필립 성도 득남	1/29
----------------	------

## 감사

강명숙 성도	떡 준비(세례 감사)
우중화 장로, 오혜숙 권사	성탄절 사랑의 돌봄, 애찬 삼베과자
조항연 장로, 임재신 권사	떡 준비(범사 감사)
김희수, 김순영 권사	떡 준비(어머님 장례)

## 감사(애찬섬김)

### ■ 범사 감사

안준호 장로, 이순실 권사 / 박광영 장로, 함은영 권사  
 진완용, 배용숙 권사 / 강익만 권사  
 유희용 목사, 이혜숙 사모 / 정대운, 허인선 집사  
 박병규, 마혜미 권사 / 최정옥 권사 / 김경미 권사  
 김홍태, 은진화 권사 / 장규은 청년, 김경자 권사  
 최희천 장로, 김성희 권사 / 제1·16부 여성교회  
 김현정, 최성일 집사 / 현정숙 권사  
 한애숙 권사 / 장성욱, 유은하 성도  
 박정열, 한기숙 권사 / 홍귀호, 정완철 권사  
 최진하, 임은미 권사 / 이준영, 길영희 권사  
 이도재 장로, 박영예 권사 / 래미안1속  
 박영자 장로, 최재영 권사 / 김수정 권사  
 김세배, 선양금 권사 / 장문식, 이지영 권사  
 김범준, 김선영 권사 / 박만기, 김지희 집사  
 홍천수 장로, 김용순 권사 / 정재성, 윤혜숙 권사  
 이주혜 집사 / 윤영구 장로, 황은숙 권사

### ■ 추모 및 장례

원종선, 김미진 권사 / 안준호 장로, 이순실 권사  
 이성태 장로, 조윤정 권사 / 정창영 권사 / 강창원 권사  
 유소영, 이승찬 권사 / 고광덕, 김소미 집사

### ■ 생일 감사

김세진, 이해경 권사 / 장운호, 김종수 권사  
 한경남, 최창욱 집사(자녀) / 차인숙 권사(자녀)  
 김기근, 최은정 성도(자녀)

### ■ 결혼(기념) 감사

고마운, 김재연 성도 / 이원익 장로, 사회경 권사  
 신보현, 이우영 권사 / 유희용 목사, 이혜숙 사모  
 오천근, 김현주a 권사(자녀) / 강석우 성도, 이현주 권사(자녀)  
 이경혜 권사(손자)

### ■ 그 외

김수연, 김성일 권사(아들 군대전역 감사)  
 방건석 전도사(목사안수 감사)  
 김혜중 집사(은퇴 감사)



독서기간 | 2026년 상반기



## 전교인 필독 독서운동

### 『내가 왕바리새인입니다』 허운석 지음 / 두란노서원

내가 가짜라는 것을 들통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자는 우리 안에 펄펄 살아 역사하는 '왕 바리새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통내야 우리는 살 수 있다. 죄를 들켰을 때 자기 연민으로 치장하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저는 고쳐서도 쓸 수 없는 인간입니다! 완전히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저자의 말기 암 통증이 극에 달했을 때 자기 생명을 소진하면서 쏟아 놓은 주옥같은 설교들을 모은 것이다. 그 메시지는 강렬하다. 정제되지 않은 생생한 날것이어서 때로는 듣는 이를 불편하게 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고 변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가 줄을 이었다. 그렇게 저자의 메시지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 인터넷을 타고 전파되었다. 저자의 살아 있는 신앙의 언어, 생생한 체험들, 유언처럼 외쳐진 메시지들이 이 땅의 한국교회와 크리스천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고 새롭게 하기를 기대한다.



###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톨스토이 지음 / 더스토리

러시아 리얼리즘의 도덕적 정점, 인간의 선과 진리를 말한다.

“신은 멀리 있지 않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 이미 신은 머물고 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전하는 톨스토이의 휴머니즘 단편집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가 출간되었다. 표제작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는 신앙과 사랑, 그리고 인간의 선함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바로 ‘타인을 위한 사랑’임을 설파한다.

이 책에는 〈젊은 황제의 꿈〉 〈세 죽음〉 〈악마는 유혹하지만 신은 참고 견딘다〉 〈죄인은 없다〉 〈부자들의 대화〉 〈무도회가 끝난 뒤〉 〈세 은사〉 등 톨스토이가 인생 후반기에 집필한 사색적이고 윤리적인 걸작 단편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는 이 작품들을 통해 인간의 위선과 욕망, 죄와 구원, 신앙과 실천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며, ‘진정한 신앙이란 사랑으로 드러나는 선행’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톨스토이의 문장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한 사람의 기도다.” 이 단편집은 그 기도의 언어들을 한데 모은, 인간 내면의 진실한 기록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 영등포중앙교회

영중소식 2026 상반기

발행처 영등포중앙교회

발행인 최태수

편집인 조영주 신승민

편집위원

김성일 김선정 김성희b 권지선 박은정 오세빛

제작 주심기획